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강좌 안내

일시: 2022년 9월 20일 ~ 11월 2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장소: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본관 101호

제1강	9월 20일	티무르와 중앙아시아	김중순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장
제2강	9월 27일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	Maurizio Riotto 안양대 교수
제3강	10월 4일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	안신 배재대 교수
제4강	10월 11일	온달과 실크로드	전대완 계명대 특임교수
제5강	10월 18일	사산조 페르시아와 쿠쉬나메	이희수 계명대 특임교수
제6강	10월 25일	무굴제국과 실크로드	Khan Afzal 경북대 연구교수
제7강	11월 1일	한반도의 이슬람	이희수 계명대 특임교수
제8강	11월 8일	세밀화와 실크로드: 『내 이름은 빨강』을 중심으로	이난아 한국외대 교수
제9강	11월 15일	실크로드의 약탈자들과 오타니 컬렉션	아라키 준 경북대 연구교수
제10강	11월 22일	실크로드 제국 통치자들의 종교적 관용	이인경 계명대학교 교수

문의: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http://censcakmu.org>

이메일: censca@kmu.org / 전화: 053-580-8998

등록:

2022년 9월 1일(목)부터 9월 7일(수)까지 선착순 40명

※ 본 프로그램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사업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금으로 실시합니다.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1강
9월 20일(화)
오후 7시-9시

티무르와 중앙아시아



강사: **김중순** 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저널 *Acta Koreana* 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황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티무르(1336~1405)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는 14세기 후반 몽골이 쓸고간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여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정하고 동서 차가타이 한국·일 한국을 병합하였으며, 킵차크 한국과 북인도까지 정벌했다. 이어 소아시아 방면에서 일어난 오스만 튀르크를 앙카라에서 격파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이 되었고, 결국 우즈베크족의 침입으로 1500년에는 사마르칸트가 함락되고, 곧이어 헤라트도 함락됨으로써 티무르 제국은 150여 년의 역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크다. 승승장구하며 공포의 존재로 여겨지던 오스만 튀르크를 패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소위 티무르 신화를 남김으로써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티무르가 당시 문화예술과 과학에 기여한 바는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건국왕 태조 이성계와 동시대 인물로, 세종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화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



강사: **마우리찌오 리오토 (Maurizio Riotta)** 교수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교에서 서양 고고학을 전공하고, 로마대학교에서 ‘한국의 청동기 시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폴리 “L’Orientale” 대학교에서 29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안양대학교 정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문학사』 (1996), 『한국고전시선집』 (2004), 『한국사』 (2005), 『신라의 비밀』 (2014), 『시인과 마법사』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삼국유사』, 『왕오천축국전』, 『해동고승전』, 『제왕운기』, 이문열의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김승옥의 『무진기행』, 조정래의 『유형의 땅』 등이 있고, 종합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책 30권, 논문 150편 이상 썼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는 역사를 통틀어 여행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수많은 질문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작가가 실제로 중국에 갔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도다. 이 강의에서는 13세기 이전의 동서양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르코 폴로의 걸작이 오늘날에도 여행기라기보다 환상적인 소설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가 구현된 역학을 설명할 것이다. 마르코 폴로의 작품은 허구적 구조와 단순한 내용으로 수세기 동안 독자를 매료시켰는데, 그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점이라 하겠다.

Considered one of the main works of travel literature of all time, Marco Polo’s travelogue instead presents numerous questions and problems that have even led to doubts as to whether the author actually went to China. This special lecture, starting from the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before the 13th century, explains the dynamics of the realization of Marco Polo’s master piece, pointing out those aspects that still today make it more like a fantastic novel than a travel diary.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3강
10월 4일(화)
오후 7시-9시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



강사: **안신**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종교철학 석사학위를,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교육과 종교문화 연구 및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화를 통해 본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이해』, 『한국 기독교의 선교와 이슬람의 다와』, 『다문화종교교육의 이해』 등이 있다.

세계인구의 84%가 종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은 기독교와 함께 선교하는 종교(missionary religion)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종교,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은 갈등과 공존, 그리고 경쟁의 다양한 관계로 역사 속에 전개해 왔다. 7세기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와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종교 개혁과 문화혁명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21세기 우리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종교’(Abrahamic religion)로서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들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변화해 왔다. 본 강의는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갈등과 전쟁’의 현실에서 ‘상생과 평화’의 이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이다.

온달과 실�크로드



강사: **전대완** 교수

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국방성 왕립군사학교에서 러시아어학 석사학위를,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언어권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했으며, 현재는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뉴욕이야기』, 『방콕이야기』, 『극동이야기』, 『실 무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을 아시나요』 등이 있다.

실크로드의 한반도 및 일본열도까지의 확장에 대해서 중국 역사학자들은 좀 소극적이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실크로드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유럽의 로마와 한반도의 경주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가 일반화되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온달’은 아직도 “평양 공주의 남편” 바보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대상(Caravan) 소그드인들의 증계무역(특히 담비가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고대사, 그중에도 고구려 온달과 마주치는 역사적 접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우리 고대사의 외연이 엄청 넓혀지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로마, 사마르칸트에는 ‘아프로시압 궁성’이 있다. 그 궁성 가운데, 우리의 ‘경회루’ 같은 장소(650~670 사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에 ‘고구려 사신들’이 그려진 사신도가 한쪽 벽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1400년만에 고구려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현신(現身)한 것이다. 과연 고구려 사신들일까? 어떻게 그토록 먼 거리까지 갔을까? 무엇 때문에? 의문이 꼬리를 잇는데, 어느 누구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인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역사적 설명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 고구려 사신들과 온달을 실크로드의 밧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한다. 흥미 넘치는 역사도전이 아닐 수 없다!

사산조 페르시아와 쿠쉬나메



강사: **이희수** 교수

터키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튀르크 이슬람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마르마라대학교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등지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 『이슬람과 한국문화』, 『세상을 바꾼 이슬람』, 『중동의 역사』, 『쿠쉬나메』 등이 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문명 1200년 역사를 마감하는 최후의 제국이었다. 로마와 뒤이은 동로마 제국과 쟁패하면서 세계적 패권을 다투었고, 동서로 찬란한 문명을 전했다. 페르시아인들의 신앙이었던 조로아스터교 전통은 후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립과 교리 발전에 기여하였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방분권제도, 다문화융합, 정교일치적 국가운영, 군대조직과 조세제도 등 거브넨스는 뒤이어 흥기한 이슬람 제국의 형성과 성장에 굳건한 토대를 제공했다. 이 제국이 아랍에 멸망하면서 마지막 왕자가 당나라에 망명해 있다가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여 삼국통일 전후시기에 활약상을 담은 <쿠쉬나메>란 페르시아 서사시가 발견되어 신라와 페르시아간 문화교류와 인적 접촉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미국 UC Press에서 영문으로 발간되었고,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에서 우리말 번역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교류정황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굴제국과 실�크로드



강사: **아프잘 아흐메드 칸 (Afzal Ahmad Khan)** 교수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 델리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현재는 경북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와 관련된 한국 문학작품 등에 대한 글을 국내 언론에 기고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한국문학 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연구- 인도의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인도 문헌 속 원숭이와의 상관성 연구」가 있다.

실�크로드를 논의할 때 인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불교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에 들어와 전통문화가 되었기에, 실�크로드는 인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하다. 실�크로드를 이해하려면 서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실�크로드와 연결되었던 나라들을 지배했던 몽골제국의 후손인 무굴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굴제국의 창시자인 바부르는 실�크로드의 중심부에 있는 사마르칸트 및 부하라를 떠나 인도로 가서 분열된 인도 왕국들을 통일시켜 대제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닦았다. 이후 무굴제국은 조상의 고향 사람들과 문화적 연대감을 활용해 일찍부터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굴제국의 5대 황제와 그들이 남긴 유산을 소개하면서 몽골과 페르시아의 문화를 계승한 무굴제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이것은 실�크로드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이슬람



강사: **이희수** 교수

터키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튀르크 이슬람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마르마라대학교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등지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 『이슬람과 한국문화』, 『세상을 바꾼 이슬람』, 『중동의 역사』, 『쿠쉬나메』 등이 있다.

한반도의 이슬람은 이른 시기부터 그 교류의 흔적을 남긴다.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9세기 중엽의 아랍어 문헌들이다. 아랍-무슬림들의 한반도 입국을 일관되게 기록하면서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환경 등에 관한 유의할만한 기록을 남겼다. 현재까지 18명의 무슬림 학자들에 의한 20여권의 책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페르시아 문헌들도 확인되었다. 한국측 사료는 1024년경 고려초기에 대식상인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고려말에는 회회인이란 존재들이 한반도에 거주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대식은 아랍상인들을 칭하고 회회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위구르 튀르크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과의 접촉과 교류, 이슬람 과학과 문화의 영향 등은 고려말-조선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1427년 오랑캐 문화를 근절하는 세종시기 칙령의 발효로 급격히 동화의 길을 걷는다. 오늘날 한국 이슬람은 한국전쟁 시기 무슬림 터키군대의 파병과 1970~80년대 중동 건설붐으로 새롭게 태동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15개의 모스크와 150여개의 무살라(예배소), 외국인 15만명, 내국인 3만 정도의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8강
11월 8일(화)
오후 7시-9시

세밀화와 실�크로드: 『내 이름은 빨강』을 중심으로



강사: **이난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터키 문학으로 석사학위,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에서 터키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앙카라 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소설 『내 이름은 빨강』, 『순수 박물관』 등 50권이 넘는 터키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이문열의 『시인』,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천상병의 『귀천』 등 6편의 한국문학 작품을 터키어로 번역했다. 저서로 『터키 문학의 이해』, 『오르한 파묵,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터키문학과 문화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튀르크 족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 정착할 때까지 이들이 접한 다양한 민족의 미적 요소들을 결합시켜 튀르크 민족 특유의 미술 영역을 확보했고,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계성을 지닌 세밀화를 창조했다.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밀화는 독립적인 예술 양식이라기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세밀화는 화집으로 모아지기도 했는데, 물감, 금박, 은박 기술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빛, 그림자 그리고 부피감을 반영하지 않는 작은 크기의 그림이다.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은 16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베네치아 화풍의 유입으로 인한 궁정화원 소속 세밀화가들의 갈등과 고뇌가 주요 소재로 다루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한 세밀화의 오스만 제국 유입 과정, 세밀화의 역사, 세밀화 제작 과정, 유명한 세밀화가, 세밀화 작품들, 세밀화 기법, 화풍 등 세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묘사되고 있다. 오르한 파묵은 이 작품을 통해 16세기 세밀화를 현대적 소설 기법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9강
11월 15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의 약탈자들과 오타니 컬렉션



강사: **아라키 준 (荒木 潤)** 교수

일본 교토대학교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 근무했다.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주 근대사를 비롯하여 실�크로드 연구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반출 경위에 대한 고찰」, 「일제강점기 경주의 유물 반출·훼손과 조선인의 대응: 신라옥적과 일승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크로드 고대 오아시스 국가의 영화와 동서교류의 발달상을 실감케 해주는 오타니 컬렉션.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 교단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교주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는 20세기 초 중앙아시아에 세 차례에 걸쳐 탐험대를 파견하여 수많은 불교 유물을 수집했다. 그 중 불교 벽화를 중심으로 한 일부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보관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오타니 컬렉션이라 부른다. 국내 유물 중심으로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이 컬렉션은 이국적 빛을 발하면서 한국 문화재를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 ‘약탈’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타니 컬렉션을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 이번 강의에서는 오타니 탐험대의 파견 경위, 사상, 실태 등을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제국 열강의 중앙아시아 탐험 사례와 비교하면서 오타니 컬렉션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10강
11월 22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 제국 통치자들의 종교적 관용



강사: **이인경**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신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 문해력, 상호종교교육, 실�크로드 종교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페르시아에서 만난 실�크로드 영웅들』(공저), 『실�크로드에서 만난 신 이야기』(공저), 『실�크로드, 중국과 한국의 접점을 찾아서』(공저), 『기독교와 대화하기』(공저), 『생명감수성 인큐베이팅』(공저),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개신교) 대학 기독교교양 교과목의 상호종교교육 가능성」 등이 있다.

실�크로드 상의 제국 통치자들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Cyrus the Great, 559~530 BC 재위),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I, 306~337 재위), 당 제국의 태종(唐太宗, 626~649 재위), 오스만제국의 메흐메드 2세(Mehmed II, 1444~1446, 1451~1481 재위)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관용을 인권과 관련된 현대적 의미의 관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할 때, 강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박해는 그 대가가 너무 크며 인종적·종교적 균질화는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은 아닐까? 이 강의에서는 바빌로니아의 마르둑과 유대의 야웨를 포용한 키루스,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 공의회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외래종교에 개방적이었던 당 태종, 기존 정교회 유지 및 조직을 재건한 메흐메드 2세의 종교적 관용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치적 함의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